

II. 금석문

1. 울진 봉평리 신라비

신라 법흥왕 11년(524)에 울진 봉평리에 세워진 율령비(律令碑)이다. 울진 지역에서 불을 지르고 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흥왕이 이를 진압하고 재판한 후 관련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민에게 주지시킨 것이다.

甲辰季 正月 十五日, 噘部 牟卽智 麻錦王, 沙喙部 徒夫智 葛文王, 本波部 積夫智 干支, 岑喙部 美昕智 干支, 沙喙部 而粘智 太阿干支, 吉先智 阿干支, 一毒夫智 一吉干支, 噠 勿力智 一吉干支, 慎宀智 居伐干支, 一夫智 太奈麻, 一尒智 太奈麻, 牟心智 奈麻, 沙喙部 十斯智 奈麻, 悉尒智 奈麻 等 所教事.

別教令, 居伐牟羅 男弥只 本是奴人, 雖是奴人 前時 王大教法, 道俠阼隘 尔耶思城 失火遶城 到大軍起, 若右者一行圖之 圖備土尊王, 大奴村 負共值五, 其餘事 種種奴人法.

新羅六部 紗班牛圖圖. 處事大人 噠部 內沙智 奈麻, 沙喙部 一登智 奈麻, 具次 邪足智, 噠部 比須婁 邪足智. 居伐牟羅道使 本洗 小舍帝智, 悉支道使 烏婁次 小使帝智, 居伐牟羅尼牟利 一伐, 弥宜智 波旦, 組只斯利 一金智, 阿大兮村使人 奈尔利 杖六十, 葛尸条村使人 奈尔利 居圖尺, 男弥只村使人 翼圖百, 於卽斤利 杖百. 悉支軍主 噠部 个夫智 奈麻節.

書人 牟珍斯利公 吉之智, 沙喙部 善文 吉之智, 新人 噠部 述刀 小烏帝智, 沙喙部 牟利智 小烏帝智. 立石碑人 噠部 博士 于時教之 若此者 獲罪於天. 居伐牟羅 異知巴 下干支, 辛日智 一尺 世中子 三百九十八.

갑진년 정월 15일에 훼부의 모즉지 매금왕과 사훼부의 사부지 갈문왕, 본피부의 훼부지 간지, 잠훼부의 미흔지 간지, 사훼부의 이점지 태아간지, 길선지 아간지, 일독부지 일길간지, 훼(부)의 물력지 일길간지, 신육지 거벌간지, 일부지 태나마, 일이지 태나마, 모심지 나마, 사훼부의 십사지 나마, 실이지 나마 등이 교(敎)하신 바의 일이다.

따로 교령(敎令)을 내리시기를, “거벌모라의 남미지는 본래 노인(奴人)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으나 앞선 시기에 왕께서 크게 법을 교(敎)하여 주셨는데, 길이 협소하고 오르막도 험난한 며야사성(爾耶思城)에 잘못하여 불이 나서 온통 성을 태우게 되어, 대군이 일어나는 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한 자들은 모두 훼를 행하여야 훼들이 땅을 지키고 왕을 높이게 될 것이니, 대노촌(大奴村)이 되어 공치(共值) 5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일들은 사안별로 노인법대로 하라.”고 하셨다.

신라 육부에서 얼룩소를 잡고 獵하였다. 일을 처리한 대인[處事大人]은 훼부의 내사지 나마와 사훼부의 일등지 나마, 구차 사족지, 훼부의 비수루 사족지이다. 거별모라 도사인 본세 소사제지와 실지 도사인 오루차 소사제지, 거별모라의 니모리 일벌, 미의지 파단, 탄지사리 일금지, 아대혜촌 사인 나이리는 장 60에 처하고, 갈시조촌 사인 나등리 거적, 남미지촌 사인 익는 100, 어즉근리는 장 100에 처한다. 실지 군주인 훼부의 개부지 나마가 맡았다.

글쓴 사람은 모진사리공 길지지와 사훼부의 선문 길지지이며, 돌에 새긴 사람은 훼부의 술도 소오제지와 사훼부의 모리지 소오제지이다. 비석을 세운 사람은 훼부의 박사이다. 이때 교(教)하기를, “만일 이번 일과 같이 하는 자는 하늘에서 죄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거별모라의 이지파 하간지와 신일지 일척이 살아 있을 적에 ‘子’하였다. 398.

2. 울진 성류굴 암각 명문(蔚珍 聖留窟 巖刻 銘文)

1) 계해년명(癸亥年銘)

성류굴 신라 금석문은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30, 성류굴 출구의 위쪽 암벽에 있다.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이고, 석회암면에 세로 7행 39자가 새겨졌다. 글자의 크기는 가로3cm, 세로4cm 정도로 예서(隸書)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그러나 암벽에 석회암 특유의 종유(鐘乳)가 흘러내려 음각으로 새겨진 자획(字劃)의 일부를 덮고 있거나, 일부 표면이 없어져 글자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聖留窟 新羅 金石文

癸亥年三月

八日窟主荷智

大奈麻未△△

此△大尺△二十

日五十九村△

人大息食

刀介△咎△

계해년(癸亥年) 3월 8일에 굴(窟)의 관리자인 하지(荷智) 대나마(大奈麻 : 신라시대 17관 등 중 10번째에 해당하는 수도의 관리 경위(京位))가 ……이 산에 ……대척(大尺)……20일에 59촌의 △인이 크게 쉬고 먹었다. 칼로 새긴 이는 △△.

성류굴 암각문을 처음 학계에 보고한 박홍국과 심현용은 “금석문에서 확인되는 관등명

인 대나마(大奈麻)가 울진봉평신라비(524년 법흥왕 11년)와 같고 568년 이후에는 ‘대나말(大奈末)’로 사용된 점, 문장이 간지(干支)로 시작되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 부명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라 중고기 금석문의 기재방식인 ‘직명(職名)+부명(部名)+인명(人名)+관등명(官等名)’ 순으로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¹

기존에 판독했던 4종의 판독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

박홍국·심현용 판독문

癸亥年三月 / 八日△丑付智 / 大奈麻未△△/ 此時我沂大思 / △古五十持△/ 知人夫息 / 刀介△咎△

이용현 판독문

1차 癸亥年三月 八日△丑付智 大奈麻未△△ 此時我沂大思 △古(右)五持△ 知人夫息
(見)信 刀△△咎△

2차 癸亥年三月 八日窟主荷智 大奈麻 未△△ 此山△△△大尺△ 二十日 五十九村△人
大息食 刀人△△

이영호 판독문

癸亥年三月 八日 巖主付智 大奈麻未△疋△ 此京△△斤△大△大△ △△五十△△△
△△人大息食 刀人△△

2) 제8광장 암각 명문²

(1) 지굴

①

叉金(또는 余)△(또는 杵·札) /

庚辰六月日 / 檜作檻父飽 / 女二交右伸 / 貞興 / 王拳 / 世益者五十人 /
甲珍九月十一日 / 息火△旦(?) / 從(?)行 /

②

老行(?) / 幷(?)老 / 小早互 /

1. 李泳鎬, 2016, 「蔚珍 聖留窟 巖刻 銘文의 검토」『목간과 문자』16, 한국목간학회
2. 심현용, 2019, 「울진 성류굴 제8광장 新羅 刻石文 발견 보고」『목간과 문자』22, 한국목간학회

③

見(또는 具)禾 / 伐 /

④

永行 /

⑤

子川 /

(2) 지글

①

[판독문]

貞元十四年/ 戊寅八月廿五日/ 梵廉行/

정원 14년(798, 신라 원성왕 14) 8월 25일 범렴이 왔다 간다.

②

(B) 久(?)辛酉[五]△/

人(?)義(?)旧(?) /

(A) 貞元十四年 勿(?)次(?) /

(A) 정원 14년(798, 신라 원성왕 14).

(B) 구신오△/ 인의구 / 물차.

③

行/ 貞元十四年八月廿五日清忠向達/

정원 14년(798, 신라 원성왕 14) 8월 25일 청충향달(또는 청충과 향달)이 왔다 간다

④

山乡信/ 辛酉年見在石山本/ 得世/ 共郎又伐山/ 得世/

(A) 신유년에 재석산, 본공랑, 차벌산, 득세, 산삼신이 (와서) 보았다. (B) 득세.

(5)

貞元廿年 / 甲申十一月三日朴上 / 來 /

孝才 / △行 /

(A) 정원 20년 갑신(804, 신라 애장왕 5) 11월 3일 박상이 왔다. (B) 흐재△가 왔다 간다.

(6)

兵府史 / 礼生行 /

(7)

良珍十口 林郎訓見 / 牛口[十]匹 /

(8)

伸陽郎訓見 善山女 / 梵廉 / 先得行(?) /

(9)

梵廉行 / 夫勿郎行云山行 /

(10)

玄才行 / 一百口[五]并 / … △寶工(또는 正)行 / 古郎良珍行 /

(11)

右(또는 尤)道 / △△力大有 古郎良珍行 / △世儕人 / 崔重權 / 冬△△ /

(12)

円(또는 白)勿郎 / … 問良力 … /

(13)

冬視行 /

(14)

昌如 /

王丁 / 頁自 / 忠行 /

首利行 /

加行(?) /

⑯

水川行 /

⑯

未叉行 /

⑰

行述(?) 内(?) / 金大△ /

金易九 / 伐見勿行 /

行△ / ⋯ △勿并 /

⑱

△石山十山叉伐山 / 山彥信 /

⑲

叉伐山 /

⑳

叉伐山 /

㉑

尔叱薩行 / 卍 ⋯ 爭 [五] ⋯ / 間山叉山△行 /

㉒

尔叱薩 孝本 /

(23)

一目一六十四并 … 八 … 十五行 /

(24)

云山長川 / 石川 /

文行 未行 / 良丙(?)行 先行 /

智光 /

(25)

水川 /

(26)

山 /

(3) 지굴

(1)

主倅 / 李復 / 淵 / 戊戌 /

君云 /

(2)

李克淵 / 主倅李復淵 / 戊戌 / 間悰行 /

(3)

宦行 /

(4)

香徒(?)

(5)

刀行 /

(6)

大陽行 /